

2018년 12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국 제조 2025' 수정 기대 속 상승 반도체, 기술주, 바이오업종 등이 상승 주도

미 증시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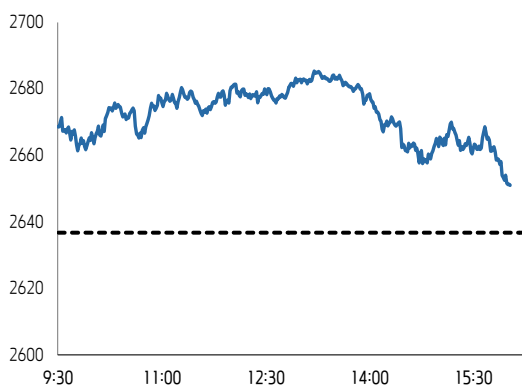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특히 일부 언론에서 중국 정부가 '제조 2025' 정책을 수정 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기술주가 상승 주도. 다만, 트럼프 전 변호사가 3 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상승폭이 축소(다우 +0.64%, 나스닥 +0.95%, S&P500 +0.54%, 러셀 2000 +1.05%)

미 증시는 중국 정부가 무역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 2025'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힘입어 관련주가 상승 주도. 최근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 새로운 지침을 내렸는데 2015 년 이후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따라 잡기 위해 추진했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대한 언급이 삭제. 관련 정책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우주설비, 고기술 선박,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목표였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지침에는 항상 '제조 2025' 이행을 장려하는 문구가 있었음.

그러나 12 일(수) 국영언론에 발표된 최신 지침에는 관련 문구가 삭제. 이번 국무원 지침에는 중국 수출 촉진 및 세계 2 위 경제국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 더불어 도로 및 수로 건설 등 인프라 투자와 석탄과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을 줄이는 공급측 개혁에 우선 순위를 조정. 향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우선 순위가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줄 것을 시사하는 내용임.

한편, 해외 언론은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더 많은 접근과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정 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19 년 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 증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 원자재 업종과 산업재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2.57	+1.44	홍콩항셱	26,186.71	+1.61
KOSDAQ	676.48	+2.34	영국	6,880.19	+1.08
DOW	24,527.27	+0.64	독일	10,929.43	+1.38
NASDAQ	7,098.31	+0.95	프랑스	4,909.45	+2.15
S&P 500	2,651.07	+0.54	스페인	8,853.40	+1.35
상하이종합	2,602.15	+0.31	그리스	646.16	+1.62
일본	21,602.75	+2.15	이탈리아	18,945.80	+1.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마이크론(+2.33%), 브로드컴(+3.30%), 인텔(+0.95%) 등 반도체 업종은 중국의 제조2025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이는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US스틸(+0.88%), AK스틸(+0.73%) 등 철강업종과 프리포트맥모란(+2.88%), 뉴몬트마이닝(+2.22%) 등 광산업종 또한 관련 이슈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보잉(+1.45%) 등 항공업종과 캐터필라(+1.73%) 등 기계 업종, 3M(+1.19%) 등 산업재, GM(+2.85%), 포드(+1.17%) 등 자동차 업종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페이스북(+1.70%), 아마존(+1.24%), 애플(+0.28%), 넷플릭스(+3.60%), 알파벳(+1.14%) 등 'FANG' 기업은 '주가 바닥론'이 제기되는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페이스북은 검색 등 미 개발된 수익 잠재력이 높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긍정적이었다. 유나이티드 랜털(+6.32%)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SPG(-2.64%) 등 리츠금융과 벡스테라에너지(-0.91%) 등 유틸리티 업종은 부진했다. 언더아머(-10.44%)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급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3%	대형 가치주 ETF	+0.27%
에너지섹터 ETF	+1.97%	중형 가치주 ETF	+0.27%
소매업체 ETF	+0.91%	소형 가치주 ETF	+0.74%
금융섹터 ETF	+0.57%	배당주 ETF	+0.78%
기술섹터 ETF	+0.78%	변동성 ETF	-0.78%
소셜 미디어업체 ETF	+2.69%	대형 성장주 ETF	+0.77%
인터넷업체 ETF	+1.76%	중형 성장주 ETF	+1.07%
리츠업체 ETF	-1.92%	소형 성장주 ETF	+1.13%
주택건설업체 ETF	+1.26%	신흥국 고배당 ETF	+1.01%
바이오섹터 ETF	+1.2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94%
헬스케어 ETF	+0.86%	하이일드 ETF	+0.29%
곡물 ETF	+0.43%	물가연동채 ETF	-0.15%
반도체 ETF	+1.52%	Long/short ETF	-0.3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5.37	+0.33%	-3.64%	-5.96%
소재	326.21	+0.95%	-3.02%	-3.70%
산업재	570.76	+0.54%	-2.96%	-4.25%
경기소비재	827.61	+1.05%	-1.28%	-2.74%
필수소비재	562.56	-0.16%	-0.70%	-3.08%
헬스케어	1,061.65	+0.86%	-1.36%	+0.17%
금융	407.26	+0.44%	-5.16%	-7.52%
IT	1,155.84	+0.79%	-1.06%	-2.10%
커뮤니케이션	146.18	+0.82%	+0.63%	-0.80%
유틸리티	284.51	-0.58%	+0.32%	+2.41%
부동산	204.83	-1.90%	-1.05%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지속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1.73% MSCI 신흥 지수도 1.5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267 계약)에 힘입어 1.25pt 상승한 270.0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2.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중국정부가 제조 2025 정책 수정 가능성을 보인 데 힘입어 상승했다. 그 동안 무역분쟁의 핵심 중 하나였던 관련 정책이 수정 될 수 있다는 점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제조 2025 정책 수정은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상승 기대감을 높인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공급측 개혁을 심화하고, 그 동안 규제했던 인프라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업종에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변화가 없자 2 년물 국채금리는 보험권을 보였다. 그러나 10 년물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완화 및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2.35 배에 그쳐 최근 12 개월 평균(2.51 배)에 미치지 못하자 상승 했다. 이렇듯 최근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이슈들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 증시가 트럼프의 전 변호사가 3 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을 축소할 점은 부담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변화 없음

11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되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 2.2% 상승해 이 또한 시장 예상치와 부합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후 장 막판 미국 공급량 증가 우려로 하락 했다. OPEC 의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원유 수요는 전월과 같은 하루 129 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4 개월 연속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이 멈춘 점도 긍정적이었다. 한편, 은 회원국들의 산유량이 하루 1.1 만 배럴 감소한 3297 만 배럴이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EIA 는 주가 원유 재고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치(-280 만 배럴) 보다 감소폭이 적은 121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공급량 증가 우려로 하락 전환 했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유로화, 파운드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총리가 정부의 예산적자 목표를 기존의 2.40%에서 2.0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자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이 높아져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메이총리 불신임안이 산정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표결에서 메이총리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한편, 메이 총리가 불신임안 표결에서 승리한 이후 매물 출회되며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11 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2 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10 년물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완화 및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2.35 배에 그쳐 최근 12 개월 평균(2.51 배)에 미치지 못하자 상승해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와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무역분쟁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되며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에서 철광석은 0.215 하락 했으나, 철근은 1.0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1.15	-0.97	-3.29	Dollar Index	97.100	-0.30	+0.03
브렌트유	60.15	-0.08	-2.29	EUR/USD	1.1362	+0.40	+0.16
금	1,250.00	+0.22	+0.60	USD/JPY	113.26	-0.11	+0.06
은	14.851	+1.52	+1.84	GBP/USD	1.2607	+0.96	-1.00
알루미늄	1,939.00	0.00	-1.52	USD/CHF	0.9935	+0.02	-0.42
전기동	6,140.00	-0.45	-0.57	AUD/USD	0.721	+0.06	-0.80
아연	2,570.00	-0.77	-1.83	USD/CAD	1.3373	-0.13	+0.13
옥수수	385.25	+0.13	+0.26	USD/BRL	3.8537	-1.19	-0.31
밀	526.50	+1.06	+1.64	USD/CNH	6.8698	-0.52	+0.15
대두	933.25	+0.54	+0.84	USD/KRW	1128.50	-0.14	+1.29
커피	103.05	+0.68	-2.74	USD/KRW NDF1M	1122.80	-0.46	+0.9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13	+3.42	-0.04	스페인	1.426	-0.80	-3.00
한국	2.007	+2.40	-2.80	포르투갈	1.718	-3.40	-7.40
일본	0.055	+0.50	-1.10	그리스	4.250	+0.50	+11.50
독일	0.279	+4.70	+0.20	이탈리아	2.998	-12.10	-6.00